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보성 하늘을 가른다

5월 2일 보성공설운동장 상공에서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축하 에어쇼 개최

보성군은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보성공설운동장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 에어쇼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에어쇼는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개막식을 장식하는 하이라이트로, 남도의 하늘과 대지를 가르는 장엄한 비행이 전국 관광객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블랙이글스'는 1967년 창설된 대한민국 공군의 정예 특수비행팀으로, 국가 주요 행사 및 국제 에어쇼에서 탁월한 팀워크와 고난도 퍼포먼스로 수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아왔다.

특히, 최근 '2023 호주 애크론 국제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실력을 바탕으로, 이번 개막식에서도 한 치의 오차 없는 웅장한 비행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서상균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보성세계차엑스포 당시 블랙이글스 에어쇼 이상의 확장된 연출과 화려한 곡예 비행을 준비 중"이라며,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를 '블랙이글스 에어쇼'로 시작해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국내 최고의 공

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보성다향대 축제의 개막을 함께 해주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공연 준비에 있어 소음 등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다향대축제'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과 보성군 일원에서 열리며, ▲보성군민의 날, ▲데일리 콘서트,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림산 철쭉문화행사, ▲보성마라톤대회, ▲어린이날 행사, ▲남도함창경연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보성/김은기 기자



담양군 '제10회 용면 추월산 벚꽃축제', 5~6일 화려한 개막

벚꽃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 마련

담양군의 제10회 용면 추월산 벚꽃 축제가 오는 4월 5일(토)과 6일(일), 이틀간 담양군 용면 추월산 벚꽃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용면청년회(회장 심갑철)가 주최·주관해 추월산의 아름다운 벚꽃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난타 공연, 버블쇼, 부채 만들기 체험·판매, 용마루길 보물찾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인 용면 딸기와 잼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4월 5일 오후 2시 개막식에서는 봉산와우농악보존회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트로트 가수 미스김

과 송유나의 초청 공연, 주민 노래자랑, 담양연예인협회의 특별 공연 등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최고령 장수상', '장수 부부상', '4대 거주 화목상', '다문화 모범상' 등의 시상식도 진행된다.

심갑철 용면청년회장은 "담양호를 품은 추월산 벚꽃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자연 속에서 벚꽃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우주과학의 즐거움, 고흥에서 만나다!

고흥우주항공축제, '동아사이언스'와 미래세대 사로잡는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과학문화 확산과 우주과학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국내 대표 과학 콘텐츠 플랫폼 '동아사이언스'와 또다시 손을 맞잡았다.

고흥군과 동아사이언스는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어린이 우주 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올해 역시 고흥우주항공축제(5. 3.(토)~6.(화))를 앞두고,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기관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는 과학 전문매체 어린이과학동아를 발행하는 '동아사이언스'와 전략적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콘텐츠 중심의 브랜드를 통해 고흥을 '대한민국 대표 우주과학 도

시'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대담한 시도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과학문화와 콘텐츠는 고흥군 브랜드 자산을 더욱 튼튼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나로우주센터와 누리호 발사, 고흥의 과학체험 등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 맵 기반의 체험형 브로셔 제작을 비롯해, 우주과학 만화, 스탬프 투어 콘텐츠까지 다양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제 현장에서는 어린이과학동아 5월호를 무료로 제공하고(500권), 우주항공축제장을 방문한 이들에게는 d라



이브러리 1개월 무료 체험권(5,900원 상당)을 전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아사이언스의 과학 뉴스레터, 데일리뉴스, 매거진 행사페이지, 공식 SNS 채널을 통한 홍보도 이뤄지기에,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전국 과학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고흥이 우주

항공과 과학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축제 이후에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등과 연계한 과학 콘텐츠 협력 모델을 확대해, 고흥이 우주항공·과학관광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흥/박도일 기자

완도군, 관광 택시 반값에 타고 완도 여행하세요!

운행 요금 기본 2시간에 5만 원, 이용일 2일 전 사전 예약 필수

완도군이 4월부터 '완도 관광 택시'를 본격 운영한다.

'완도 관광 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관광지와 문화 유적 등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 택시 기사와 함께 이동하며 관광지 설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완도 관광 택시 운행 요금은 기본 2시간에 5만 원, 3시간에 7만 원, 5시간에 10만 원, 8시간에 14만 원이며, 택시 요금의 50%는 완도군이 지원한다.

관광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이용일 2일 전까지 완도 관광택시 ☎ 061-555-8582)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반값 관광 택시뿐만 아니

2025 완도 방문의 해
완도 관광 택시 반값 이용 꿀팁!

2025. 4. 1. ~ 예산 소진 시까지

구분	우원동북상 원동과 2구역	완도군	상해 지역(완도군 제외)
기본요금	5만 원	5만 원	5만 원
2시간	5만 원	5만 원	5만 원
3시간	7만 원	7만 원	7만 원
5시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8시간	14만 원	14만 원	14만 원

※ 완도 관광 택시 운행 시간: 06:00 ~ 23:00 (주말, 휴일 포함)
※ 완도 관광 택시 운행 지역: 완도군 전역 (상해 지역 제외)
※ 완도 관광 택시 운행 차량: 완도군 소유 차량 (완도군 차량 번호판)
※ 완도 관광 택시 운행 차량: 완도군 소유 차량 (완도군 차량 번호판)

라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 경비의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완도 치유 페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완도를 찾아 힐링 여행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곡성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신규 발굴 추진

취약계층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곡성군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신규대상자 발굴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이들 또는 가족에게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다.

대상은 아동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초기상담 및 양육 환경 조사 후, 사례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분야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자원 및 후원기관 연계를 통해 후원 물품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농산어촌 특화 대상으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신규 발굴을 추진 했다.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들 스스로가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선제적으로 찾아 신속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함평군-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지역 주민 숙원 해결 맞춘

국도 22호선 외치지구 교차로 개선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전남 함평군에서 외치지구 국도22호선 교차로 개선 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3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2일 월야면사무소에서 국도 22호선 함평 외치지구 교차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치지구는 월야면소재지에서 국도22호선으로 진입하는 램프(경사로)가 없어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도로 이용객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으며 교차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차로 개선 사업은 외치지구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

공하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월야면 외치리 335-6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입해 국도 22호선 광주 방향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올해 착공을 목표로 공사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은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 방제팀장은 "이번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도로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에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저를 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룩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해탈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
엔 다 잘될 테니까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치

새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라하고 싶은 마음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더 크게 웃을 것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해질 것
새감처럼
잠시
리우고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